

정부, 버스·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월 1회 배달앱 수수료 현황도 표시 편의점, 소비자단체 가격조사 포함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앞으로 매달 1회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서울 YWCA 회관에서 불가관계자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

이 예정돼 있으나, 역시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불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용·숙박·세탁·요식업 등 생활 밀착업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요금 동결을 장려한다.

소비자물가는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를 넓혀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쟁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함께 표시한다

배달 수수료 현황은 일단 서울 등 일부 지역부터 공개하되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에 편의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온라인 쇼핑물 대상 가격조사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향후 조사 결과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특별물가 조사사업은 시행 시기를 2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겨 진행한다. /연합뉴스

경제 프리즘

전기차 목표 미달시 기여금 부과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2%,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는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되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접수

광주·전남신보, 중신용 소기업·상공인 대상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은 24일부터 3조8,000억원 규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중신용(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4일부터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진행된다. 시행 초기 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법인사업자는 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대환자금을 추가로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 0.2%p 감면(0.8%→0.6%)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잔액과 관계없이 보증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기업과 소진금 '희망대출' 및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급받은 기업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국제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과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애란 기자



현대차·기아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기아 제공

기업 74% “설 연휴 5일 쉰다”

올해 설 연휴(1.29~2.2)에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5일간 쉰 채워 쉬무할 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3~18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설 휴무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7%가 '5일 휴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4일 이하' 휴무 기업은 13.4%였으며, '6일 이상' 기업은 13.0%였다.

'6일 이상' 휴무 기업 가운데 다수(72.7%)는 그 이유로 일감이나 비용 문

제보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를 제시했다.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을 꼽은 기업은 12.7%였고, '연차 수당 등 비용 절감'을 든 기업은 5.5%였다.

직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61.9%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의 63.5%보다 1.6%p 감소했다. 상여금 수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91.0%로 가장 높았다. '작년보다 적게'라고 응답한 기업은 4.7%, '작년보다 많이'라고 답한 기업은 4.3%였다. /연합뉴스

“무상점검 받고 고향 다녀오세요”

현대차·기아, 26~28일 전국 서비스센터서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는 현대차 전국 21개 하이테크센터(수원 하이테크센터 제외)와 1,331개 블루핸즈, 기아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783개 오토큐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설 귀성길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

및 기능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차·기아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점검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점검 ▲전조등, 제동등, 미등 등 각종 등화장치 점검 ▲위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 오토큐를 통해 점검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차

'myHyundai', 제네시스 'My Genesis', 기아 'KIA VIK' 등 각사 통합 고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 후 기간 내 방문하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영센터로 입고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점검이 가능하다.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안전한 귀성길 운행에 도움이 되고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경매 물건, 작년 10월부터 증가

법원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9월에 5,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96건, 11월 6,804건으로 두 달 연속 늘었다. 서울남부지법(54.6%·152건→235건)과 서울서부지법(46.6%·73건→107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70.1%·97건→165건)과 수원지법 안산지원(60.4%·106건→170건) 등에서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은 광주지법 목포지원(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60.0%·50건→80건)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4개사 카드론 평균금리 올라

지난달 신한카드를 포함해 4곳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가 올랐다. 업계는 카드론 평균 금리가 조만간 15%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10~14.94%였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를 전월(12.13~14.86%)과 비교해 보면 하단은 조금 내려갔지만, 상단은 상승했다.

지난달 신한·우리·현대·NH농협카드의 평균 금리는 한 달 전과 비교해 0.12~1%포인트(p) 높아졌다. 롯데·삼성·하나·KB국민카드는 0.03~1.0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평균 금리가 12%대를 기록한 카드는 11월 3개에서 지난달 하나카드 1개로 줄었다. 4개월 전 작년 8월에는 평균 금리가 12%대였던 카드사가 4개였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